

# 태조어진 봉안행렬 전주서 재현

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의 봉안행렬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태조어진과 경기전 등 조선왕조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콘텐츠 확충을 위해 오는 29일 노송광장과 팔달로 경기전 일원에서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태조어진 봉안행렬은 1688년(숙종 14)에 서울 영희전의 태조어진을 새로 모셔하기 위해 경기전의 태조어진을 서울로 모셔오다가 다시 전주 경기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고증을 통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청 앞 노송광장을 주정소(書正所, 왕이 행차 중에 멈추어 쉬는 곳)로 정하고,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進發儀式, 출발을 알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봉안장소인 경기전으로 봉안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선두는 어진을

시, 29일 노송광장~팔달로~경기전 일원서 진행

호위하는 진라감사가 이끌게 되며, 그 뒤를 신여(神輿), 향정자(香亭子), 전부고취, 금난포수, 신연(神簾), 후부고취, 대축, 참봉, 도제조, 후사대 등이 서게 된다.

행렬인원 뒤편으로는 일반시민들도 행렬을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풍납문사거리에서 행렬선두가 도착하면 약 10분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행렬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이 진행된다.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노송광장에서 충경로사거리, 풍납문사거리 등 팔달로에서는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봉안행렬이 경기전 정문을 통과해 강연소에 도착하면 의장이 도열한 가운데 신연(神簾)에 모셔진 어진계를 신여(神輿)로 옮긴다. 이후 외신문과 내신문을 통과하여 경기전 정전에 도착하면 신여에서 어진계를 꺼내 정전

에 모신다. 어진이 경기전 정전에 모셔지면 경기전제례보존회(대표 이준기) 주관으로 태조어진 봉안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태조어진 봉안을 잘 마쳤음을 알리는 제례)가 진행되고, 고유제가 끝나면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시는 조선왕조의 분향인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재현행사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작년 행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봉안행렬의 내실을 기했다. 또, 진행인력의 예행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과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직접 봉안행렬에 참여토록 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봉안행렬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태조어진 봉안행렬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행사

과정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방영될 예정이며, 이는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영상기록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태조어진 봉안행렬에 대한 고증을 마무리하고 정제화된 전주만의 전통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렬의 완성도와 품격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조어진 봉안행렬로 인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팔달로 및 충경로 일원의 교통이 통제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 동안은 오거리광장에서 충경로사거리가 전면 통제되며, 이후 30분 동안은 충경로사거리에서 풍납문사거리가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봉안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팔달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량은 전면으로 우회해 운행해야 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기전로로 우회 운행된다.

/김영재 기자

## “농소마을 학교부지 공동체시설 건립”

고미희 전주시의원 촉구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은 농소마을 학교부지 경로당 등 공동체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고미희 의원은 26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시장질문을 통해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시설을 비롯한 복합 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주장 제안했는데, 현재 효지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주



시로 이관해 용도 미정의 시 소유 유지가 됐다”며 공동체시설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주시는 현 초등학교 교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택지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순창방면 카풀주차장 조성 시급”

김주년 전주시의원 제안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은 순창방면 카풀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김주년 의원은 26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에서 순창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카풀주차장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는 시 외곽 도로변 및 인근 지역의 무질 불법주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카풀 문화 정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 많이 설치됐는데 유독 순창방면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순창방면 카풀주차장 설립을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임실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26일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체험관에서 화재와 지진, 태풍 등 15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이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위원들은 소화기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피난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 구호 분야 교육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위원들은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은·도토리골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찾아 배수로 신설 및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추진 상황도 둘러봤다.

이와 관련, 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민들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증진사업 개발과 우선순위사업 중점 추진, 안전문화 형성 및 네트워크 구성을 전략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손상감소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안전한 일등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자발찌 착용 시연

26일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북대병원 간호부, 지역민 찾아 봉사활동 펼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간호부가 지역 한마을 체육·문화 행사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1팀에 6~7명씩 구성된

간호봉사단이 지난 8일과 22일 서신동과 인후3동, 평화2동 동민들의 날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간호봉사단은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혈압과 혈당측정 등의 건강 체크와 고혈압 및 당뇨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펼치는 한편 교육 자

료인 리플릿을 제공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상처 소독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고 직접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강명재 병원장과 유말봉 간호부장이 직접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가 봉사단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며 소통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재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구간 축소 및 누진을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기사용 절약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환경과 국민생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몰아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상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며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해준 것은 선심성 조치”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전주시의회가 26일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폭력 예방 교육은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유쾌한가족과 성상담소 채현숙 소장은 4대 폭력 발생원인 및 대응방법과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관련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